

1. 漢字의 起源과 變遷, 題字 原理로서의 ‘六書’

1) 漢字의 起源 : 漢字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

○ 倉頡 製字說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倉頡만이 홀로 그 글을 後世에 傳한 사람이다.(好書者衆矣, 而倉頡獨傳者壹也)”(『荀子』「解蔽」(積弊의 解消))

“奚仲이 수레를 만들고, 글자는 倉頡이 만들었다.”(奚仲作車, 倉頡作書)(呂不韋, 『呂氏春秋』)

“黃帝의 史官인 倉頡이 새나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이를 分類하면 서로 다른 것끼리 區別할 수 있음을 알고 처음 글자를 만들었다.”(許慎, 『說文解字』「自序」)

“倉頡은 눈이 네 個였다.”(王充, 『論衡』「骨相」)

○ 元始漢字에 關한 記錄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周易』「繫辭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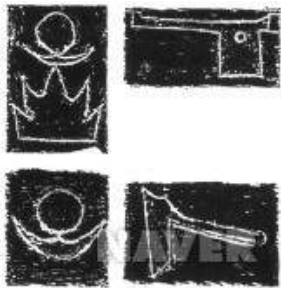
“造書契以代結繩”(『史記』「三皇本紀」)

結繩과 書契의 政事 : 文字가 없던 太古時代에 노끈으로 매듭을 맺어 符號를 삼아서 行한 素朴한 政治形態를 말한다. 神農氏가 이 結繩의 政事를 行하다가, 伏羲氏 때에 이르러 八卦를 긋고 나무에 새긴 最初의 文字를 만들어서 書契의 政事를 行했다는 記錄이 『周易』「繫辭傳 下」와 『史記』卷1「五帝本紀」에 보인다.

○ 遺跡에서 發見된 元始漢字



<양사오(仰韶) 文化 遺籍地 出土 陶文(陶器에 새겨진 文字)> : B.C 5000~3000頃



<다원커우(大汶口) 文化 遺籍地 出土 陶文>
: B.C 4300~2500頃

○ 漢字의 變遷



① 甲骨文：殷나라 後期(紀元前 1300~1000)、西周 初期(紀元前 1000 年頃)에 使用된 文字. 龜甲獸骨文字의 줄임말. 거북의 배딱지[腹甲]나 소의 어깨뼈[牛肩胛]에 卜辭(占친 內容)를 새겨놓은 것.



② 金文：金文은 中國 古代 殷、周를 거쳐 春秋戰國時代까지 1200年 동안 各種 青銅器物에 새겨진 글자. 鐘鼎文이라고도 함. 西周에서 가장 盛하였기 때문에 西周金文이라고도 함.



③ 篆文：大篆과 小篆을 아울러 부르는 名稱. 大篆은 周나라 宣王(紀元前 827~紀元前 782 在位) 때 史官이었던 籀가 만들어냈다고 해서 '籀文' 또는 '籀書'라고도 부른다. '大篆'이라는 名稱은 秦나라 때의 '小篆'과 區分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小篆'은 秦나라 때 李斯(?~紀元前 221)가 大篆을 標準 計量化하여 만든 글자로서 '秦篆'이라고도 부르는데, 後世에 '篆書'라고 할 때는 大概 이 '小篆'을 가리킨다.

<李斯가 쓴 泰山刻石의 앞 部分>
“斯臣去疾御使”



秦始皇의 功德을 稱頌한 <嶧山刻石>의 一部.
宋나라 933년에 다시 새긴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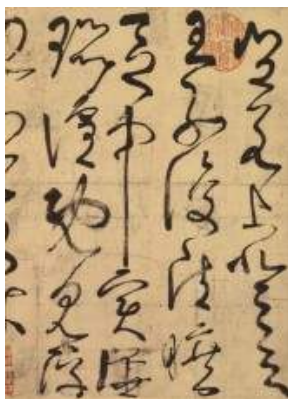
④ 隸書：秦나라에서 考案되어 漢나라 末期까지 愛用된 書體. 秦나라 下級官吏인 ‘隸人’이 行政의 效率을 기하기 위해 速記하는 過程에서 생겨난 글자. 秦나라 때에는 公式 書體인 ‘小篆’을 補助하는 役割을 하여 ‘左書’라고 불림. 漢나라에 이르러 公式의인 書體로 浮上함. 漢字의 字形 變化가 隸書에 이르러 가장 두드러져 이전의 小篆까지를 古文字로 分類하고 以後부터는 近代文字로 分類함.

◀◀ 曹全碑의 一部. 後漢 曹全의 功德을 讚揚하는 글.



⑤ 楷書：楷書는 隸書에서 變化 發展하여 魏晉南北朝 時代에 確立된 書體로 隸書보다 端正하고 筆法에 法度가 있어 이를 ‘眞書’ 혹은 ‘正書’라고도 한다. ‘楷書’라는 名稱 속에 본보기가 되는 端正한 글자라는 意味가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쓰는 漢字體의 標準이 되는 書體이다.

◀◀ 歐陽脩 <九成宮醴泉銘>의 一部. 唐 太宗이 九成宮에서 避暑하며 ‘醴泉’이라는 샘물을 禮讚한 內容.



⑥ 草書：漢代에서 形成되어 오늘날까지 愛用되는 書體. 빠른 筆寫를 위해 考案된 書體. ‘草率한 글씨’라는 意味. 처음에는 隸書를 簡素하게 흘려 쓴 章草를 使用하다가 後漢 末의 張芝와 東晉의 王羲之에 傳授되어 새로운 筆法으로 誕生하여 ‘今草’로 불리게 되었고, 唐代에 이르면 한層 大膽하게 變貌하여 ‘狂草’가 생겨나는데 特히 張旭의 狂草가 有命하다. 變化가 많고 活潑한 筆體의 特徵 탓에 詩歌의 筆法으로 즐겨 愛用되었다.

◀◀ 張旭, <古詩四帖>의 部分



⑦ 行書：楷書와 草書의 中間에 該當하는 書體. 筆寫 速度가 느린 楷書와 識別이 難解한 草書의 短點을 折衷해 筆寫를 爲主로 만든 行書는 筆劃의 連結이 自然스럽고 쓰기에 便利하면서 草書만큼 알아보기 어렵지 않아, 個人의 文書와 書信 등에 普遍的으로 使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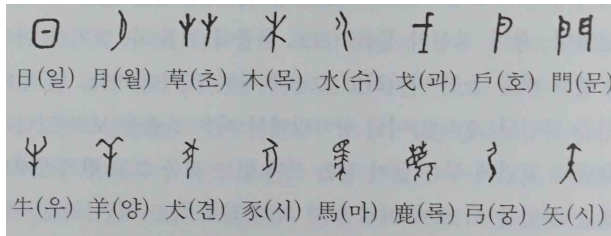
王羲之, <蘭亭序>의 部分 ▶▶

※ 書體의 變化

甲骨文	金文	篆文	隸書	楷書	草書	行書
						

2) 漢字의 六書 : 여섯 가지 製字 原理

① 象形 : 事物의 모양이나 特徵을 그린 글자로서 ‘해 日’ 字와 ‘달 月’ 字가 代表的 例이다.



② 指事 : 象形과 基本的으로 같은 屬性의 글자인데, 象形이 具體的 事物을 이미지로 그려서 指示하는 데 비해 指事는 抽象的 指示物을 可視的으로 表記한 글자이다. ‘위 上’ 字와 ‘아래 下’ 字가 그 例이다.

例) 一, 二, 三, 上, 下, 本, 末, 量, 甘

③ 會意 : 두 개 以上の 글자를 組合해 第三의 다른 意味를 만들어내는 글자로서, 『說文解字』에서는 ‘武班 武’ 字와 ‘믿을 信’ 字를 例로 들었다. 즉 ‘武’ 字를 ‘그칠 止’와 ‘槍 戈’의 合體字로 보아 “戰爭을 막는 것이 ‘武’의 뜻이다.(止戈爲武)”로 보고, ‘信’ 字는 “사람의 말은 新意가 있어야 한다.(人言爲信)”에서 ‘믿음’이란 意味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例) 明, 至, 折, 隻, 爲, 突, 臭, 息, 解

④ 形聲 : 意味를 나타내는 義符와 字音を表記하는 聲符로 이루어진 글자로서 『說文解字』에서는 ‘강 江’ 字와 ‘물 河’ 字를 例로 들었다. 漢字의 大部分은 이 形聲에 依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形聲은 中國人의 觀念 形成에 直接的인 影響을 끼쳤다.

例) 今, 含, 吟, 念, 貪 / 易, 陽, 場, 腸, 湯, 蕩

⑤ 轉注 : 『說文解字』에서는 ‘죽은 아비 考’ 字와 ‘늙을 老’ 字를 例로 들어놓고 說明했는데, 그 說明이 매우 模糊하여 後代 文字學者들의 論難을 불러일으켰다.

例) 惡, 樂

⑥ 假借 : 나타내고자 하는 뜻의 글자가 없을 때 發音이 같은 다른 글자를 빌려表記하는 방식이다. 『說文解字』에서는 ‘우두머리 令’ 字와 ‘우두머리 長’ 字를 例로 들었다.

例) 巴利(파리), 印度(인도), 首尔(서울), 紐約(뉴욕), 可口可樂(코카콜라), 多不有時(W.C).

2. 荀子の 形態와 場所, 杜甫의 「石壕吏」

1) 荀子(BC298~BC238), 〈正名〉, 《荀子》 22편.

物有同狀而異所者	事物에는 形態는 같으나 場所가 다른 것이 있고
有異狀而同所者	形態는 다르나 場所가 같은 것이 있어
可別也	分別할 수 있다.
狀同而爲異所者	形態는 같으나 場所가 다른 것은
雖可合	비록 이름을 숨칠 수 있더라도
謂之二實	‘두 個의 實’이라 말한다.
狀變而實無別而爲異者	形態는 變했지만 實相에는 아무런 區別이 없는데도
	名稱을 다르게 붙이는 것을
謂之化	‘化’라 한다.
有化而無別	‘化’는 있으되 아무런 區別이 없는 것을
謂之一實	‘한 個의 實’이라 말한다.

2) 杜甫(712~770), 〈石壕吏〉, 《九家集注杜詩》 권3.

暮投石壕村	날 저물어 石壕村 ¹⁾ 에서 投宿하니
有吏夜捉人	衙前이 한밤中에 사람 徵發하러 왔네.
老翁踰牆走	할배는 담 넘어 달아나고
老婦出門看	할매가 門 밖으로 나가 보았네.
吏呼一何怒	衙前의 호통소리 어찌나 저리 무섭고
婦啼一何苦	할매의 울음소리 어찌나 이리 苦痛스러울꼬?
聽婦前致詞	할매가 衙前 앞에 바치는 말씀 들어보니,
三男鄴城戍	“세 아들 모두 鄴城 ²⁾ 에 수자리 살러 갔다오.
一男附書至	한 아들이 부친 便紙가 到着했는데
二男新戰死	두 아들이 最近 戰爭터에서 죽었다 해요.
存者且偷生	살아남은 놈은 將次 苟且하게라도 살아가겠지만
死者長已矣	죽은 놈은 그것으로 永永 끝난 게지요.
室中更無人	집안에는 달리 사람도 없고
惟有乳下孫	오로지 젖먹이 孫子 하나뿐.
乳孫母未去	젖먹이 어미는 아직 徵發되진 않았지만
出入無完裙	드나들려 해도 穩全한 치마 한 벌 없다오.
老嫗力雖衰	늙은 이 할매가 힘은 비록 衰하나
請從吏夜歸	나리를 따라 밤을 새워서라도 가리다.

1) 石壕村은 只今의 河南省에 있는 고을 이름이다.

2) 鄴城은 只今의 河南省 臨漳縣 西南쪽에 있는 地名으로, 北齊의 도읍이 여기에 있었다. 이곳에서 唐 나라 肅宗 乾元(758~760) 初에 唐나라 政府軍과 安祿山·史思明的 叛亂軍이 戰鬪를 벌였다.

急應河陽役 急한대로 河陽³⁾의 戰爭터에라도 보내주시면
 猶得備晨炊 只今 가도 아침밥 지을 準備는 할 수 있을 거예요.”
 夜久語聲絕 밤 깊어지니 말소리 잦아들고
 如聞泣幽咽 아득하니 목메는 소리 들은 듯하네.
 天明登前途 날이 밝아 다시 갈 길 떠날 때에는
 獨與老翁別 할배와만 作別 人事 나누었네.

3. 詩 - 나, 그것, 남, 너

1) 나 - 金時習과 ‘自己 앞의 生’

我生既爲人 나 태어나 사람이 되어서도
 胡不盡人道 어찌하여 사람 道理 다하지 못했나?
 少歲事名利 어릴 때엔 名利 일삼았고
 壯年行顛倒 나이 들어선 行動이 갈팡질팡했지
 靜思縱大惡 고요히 생각하노라니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不能悟於早 일찌감치 깨닫지 못했다는 것
 後悔難可追後悔한들 돌이키기 어려워
 寤擲甚如擣 잠만 깨면 방아질 하듯 甚하게 가슴 찢지
 況未盡忠孝 더욱이 忠孝의 道理 다하지 못했으니
 此外何求討 이 밖에 또 무엇 따지랴?
 生爲一罪人 살았을 땐 한 名의 罪人이요
 死作窮鬼了 죽어서는 窮한 鬼神 되겠구나
 更復騰虛名 다시금 이름에 대한 헛된 마음 솟아오르니
 反顧增憂惱 돌이켜보면 근심과 煩惱만 더할 뿐
 百歲標余墳 나 죽은 뒤 무덤에 꽃말을 세운다면
 當書夢死老 마땅히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야 하리
 庶幾得我心 그렇다면 내 마음을 거의 이해한 것이니
 千載知懷抱 千年 뒤에도 이내 懷抱 알아주는 이 있으리라⁴⁾

2) 나와 그것 - 산다는 것, 父母를 먹거나 죽이거나

くらし

산다는 것

食わずには生きてゆけな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다.

3) 河陽은 지금의 하남성 孟縣에 있다.

4) 金時習, <我生>, 《梅月堂集》卷14, 한국문집총간 13, 318면.

メシを	밥을
野菜を	푸성귀를
肉を	고기를
空気を	空氣를
光を	빛을
水を	물을
親を	父母를
きょうだいを	兄弟를
師を	스승을
金もころも	돈도 마음도
食わずには生きてこれなかった。	안 먹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ふくれた腹をかかえ	부풀어 오른 배를 안고
口をぬぐえば	입을 닦으면
台所に散らばっている	주방에 널려 있는
にんじんのしっぽ	당근 꼬리
鳥の骨	닭 뼈다귀
父のはらわた	아버지의 창자[腸]
四十の日暮れ	마흔 살 해질녘
私の目にはじめてあふれるの獸の涙。	내 눈에 처음으로 넘치는 짐승의 눈물. ⁵⁾

唐나라 때 禪僧인 臨濟禪師(?~867)가 講說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祖師⁶⁾를 만나면 祖師를 죽이고, 阿羅漢⁷⁾을 만나면 阿羅漢을 죽이고, 父母를 만나면 父母를 죽이고, 親戚을 만나면 親戚을 죽여라”(『臨濟錄』)는 話頭와 같은 脈絡이다. 예수[耶蘇] 또한 많은 群衆이 自己를 따라오자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른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子女, 兄弟와 姉妹, 심지어 自己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弟子가 될 수 없다”라고 한 말과도 一脈相通합니다.(「루카福音 14章」)

3) 나와 남 - ‘나의 탓과 남의 탓’, ‘나의 덕분과 남의 덕분’의 사이

子曰：“譬如爲山，未成一簣，止，吾止也；譬如平地，雖覆一簣，進，吾往也。”(『論語 子罕』)

선생님 말씀하시다. “산을 만드는 데 譬喩하자면 한 삼태기를 채우지 못해 未完成에 그친 것도 내가 그친 것이요, 平地를 만드는 데 譬喩하자면 고작 한 삼태기를 쏟아도, 나아간 만큼은 내가 간 것이다.”(『논어 子罕』)

* 簣(궐) : 삼태기. 새끼로 꼬아 만든, 흙이나 곡식을 담아 옮기는 容器.

5) 이시가지 린(石垣りん), 〈산다는 것(くらし)〉, 서경식, 《시의 힘》, 현암사, 2015, 270~271면.

6) 祖師 : 宗派 또는 學派의 開祖.

7) 阿羅漢 : 佛弟子들이 到達하는 最高의 境地이자 階位.

* 내가 아무리 큰 苦生을 했더라도 아주 작은 失手를 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고, 내가 아직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님에도 아주 작은 實踐을 했다면 그것은 나의 成就이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人間의 主體的 契機가 十分 強調되고 있다. 世上萬事의 크고 작은 結果들은 모두 제각각 ‘나의 잘못’이면서 ‘나의 成就’이다. 各各이 ‘내 탓’이면서 ‘내 덕분’인 것이다. 이는 ‘전부 내 탓이다’ 식의 自己卑下도 아니고 ‘전부 남 탓이다’ 식의 責任回避도 아니다. 내가 100에 99가지를 이미 잘했어도 내가 하나를 못했다면 그것은 ‘내 탓’이고, 내가 100에 99가지를 아직 못했어도 내가 하나를 잘했다면 그것은 ‘내 덕분’인 것이다.

아울러 나를 지금의 나이에 만든 要因 중에는 ‘내 탓이면서 남 탓’인 경우가 있고 ‘내 덕분이면서 남 덕분’인 境遇가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人間은 普通 自己에게 가장 主觀的(寬容)이고 他人에게 가장 客觀的(嚴格)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인 것이다. 반대로 自己에게 가장 客觀的이고 他人에게 가장 主觀的인 것이 倫理的이다. ‘내가 하면 不倫, 남이 하면 로맨스’인 것이다. 그러나 事案에 따라 狀況에 따라 ‘내가 하면 不倫일 수도 있고(내 탓) 로맨스일 수도 있다(내 덕분)’ 또는 ‘남이 하면 不倫일 수도 있고(남 탓) 로맨스일 수도 있다(남 덕분)’. 이러한 思考方式이야말로 가장 均衡的인 態度일 터이다. 나와 남, 잘못과 成就, 탓과 덕분, 主觀과 客觀, 寬容과 嚴格은 ‘때(狀況)’에 따라 달리 適用되고 判斷되는 것이다. 이것이 時中이자 中庸이 아닌가 한다.

4) 나와 너 - ‘한 마리 개’에게서 ‘스승이자 親舊’에게

(1) “나는 어릴 때부터 ‘聖人の 가르침’이 담긴 冊을 읽었지만 ‘聖人の 가르침’이 무엇인지 몰랐고, 孔子를 尊崇했지만 孔子에게 무슨 尊崇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몰랐다. 俗談에 이른바 난장이가 키 큰 사람들 틈에 끼어 굿거리를 구경하는 것과 같아, 남들이 좋다고 소리치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덩달아 그저 좋다고 따라 소리치는 격이었다. 나이 五十 以前까지 나는 정말 한 마리의 개와 같았다. 앞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어대자 나도 따라 짖어댄 것일 뿐, 왜 그렇게 짖어냈는지 까닭을 묻는다면, 그저 병어리처럼 아무 말 없이 웃을 뿐이었다.”⁸⁾

(2) “나는 스승과 親舊는 원래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둘이 다르단 말인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親舊가 곧 스승임을 모르고, 四拜를 올리고 學業을 傳受받은 사람만이 스승이라 여긴다. 또한 스승이 곧 親舊임을 모르고, 그저 함께 사귀어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親舊라고 여긴다. 만약 親舊라서 四拜를 올리고 學業을 傳受받을 수 없다면, 필시 그와 함께 親舊가 될 수 없고, 만약 스승이라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지 못한다면, 또한 그를 스승으로 섬길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은 親舊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그러므로 ‘友’ 앞에 ‘師’를 붙여서, 사귀는 親舊를 스승으로 모시지 못할 것이 없으며 만약 스승으로 모실 수 없다면 親舊도 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대체로 말해서, ‘師友’라고 일컫기는 하지만, 結局 그 意味는 ‘友’라는 한 글자뿐이다. 그러므로 親舊라고 하면 스승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⁹⁾

8) 卓吾 李贄,〈聖人の 가르침에 대한 짧은 머리말(聖教小引)〉, 《焚書》 卷2, “余自幼讀《聖教》不知聖教, 尊孔子不知孔夫子何自可尊, 所謂矮子觀場, 隨人說研, 和聲而已. 是余五十以前真一犬也, 因前犬吠形, 亦隨而吠之, 若問以吠聲之故, 正好啞然自笑也已.”

(3) 燕巖의 벗, 五倫의 最後方

友居倫季 五倫 끝에 벗이 놓인 것은
匪厥疎卑 보다 덜 重視해서가 아니라
如土於行 마치 五行 중의 흙이
寄王四時 네 철에 다 旺盛한 것과 같다네
親義別敘 親과 義와 別과 序에
非信奚爲 信 아니면 어찌하리
常若不常 常도가 正常的이지 못하면
友迺正之 벗이 이를 是正하나니
所以居後 그러기에 맨 뒤에 있어
迺殿統斯 이들을 後方에서 統制하네
三狂相友 세 狂人이 서로 벗하며
邈世流離 世上 피해 떠돌면서
論厥讒諂 讒訴하고 阿諂하는 무리를 論하는데
若見鬚眉 그들의 얼굴이 비치어 보이는 듯하네

이에 馬駟傳을 짓는다.¹⁰⁾

4. 老子와 孔子, 朱子の 逆說

1) 老子와 孔子 : ‘經傳=詩’의 패러독스

* 老子, 《道德經》45章

大成若缺 크게 이루어진 것은 흠이 있는 듯하다
其用不弊 하지만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大盈若沖 크게 채워진 것은 마치 빈 듯하다
其用不窮 하지만 그 쓰임은 窮塞하지 않다
大直如屈 큰 곧음은 마치 굽은 듯하고
大巧如拙 큰 工巧함은 마치 拙劣한 듯하고
大辯如訥 큰 達辯은 마치 語訥한 듯하다

9) 李贄, 〈黃安의 두 스님을 위해 쓴 글 세 편(爲黃安二上人三首) 中 ‘참된 스승(眞師)’〉, 《焚書》 권2, “余謂師友原是一樣, 有兩樣耶? 但世人不知友之即師, 乃以四拜受業者謂之師; 又不知師之即友, 徒以結交親密者謂之友. 夫使友而不可以四拜受業也, 則必不可以與之友矣. 師而不可以心腹告語也, 則亦不可以事之爲師矣. 古人知朋友所系之重, 故特加師字於友之上, 以見所友無不可師者, 若不可師, 即不可友. 大概言之, 總不過友之一字而已, 故言友則師在其中矣.”

10) 朴趾源, 〈放瑠閣外傳 自序〉, 《燕巖集》卷8, 韓國文集叢刊 252, 118面.

* 老子, 《道德經》68章

善爲士者, 不武 좋은 士는 武勇을 보이지 않고
善戰者, 不怒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으며
善勝敵者, 不與 적을 잘 이기는 자는 介入하지 않고
善用人者, 爲之下 사람을 잘 쓰는 자는 自身을 낮춘다.
是謂不爭之德 이를 일러 싸우지 않는 德이라 하고
是謂用人之力 사람을 잘 쓰는 힘이라 하며
是謂配天古之極 千古의 極致에 匹한다 한다.

* 孔子, 《論語 微子》

我則異於是 나는 이들과 다르니,
無可無不可 그래야 할 것도 없고 그러지 말아야 할 것도 없다.

* 孔子, 《論語 里仁》

君子之於天下也 君子란 하늘 아래
無適也 그 어디서건 꼭 해야 할 것도 없고,
無莫也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없으니,
義之與比 義로써 衡量할 따름인 것.

孔子는 君子에 대해 “다투는 바가 없다(無所爭)” 하였으니, 君子란 그저 ‘나의 길(道)’을 걷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의 길’이란 애초에 虛 속으로 길을 내는 것이요, 空 속에서 걸을 찾는 것이요, 無 속으로 接續하는 길일진대, 그 어찌 ‘남과 競爭할 것’이 따로 있겠는가. 그 나의 길을 만들어 좇기도 人生은 짧은 것을. 윤종권은 時壽机故新에서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의 演奏會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最高의 曲들은 作曲되지 않는다. 그것은 虛空을 한 조각 잘라오는 것이다.”

2) 朱子 : 깊음과 閑暇함, 奧妙함과 즐거움

朱熹, 〈卜掌書의 〈白鹿書堂 落成〉詩에 次韻함[次卜掌書落成白鹿佳句]〉

重營舊館喜初成 옛날 學宮의 重修 비로소 이루어져 기쁘니
要共羣賢聽鹿鳴 여러 賢人들과 더불어 《詩經》의 鹿鳴 篇¹¹⁾ 듣노라.
三爵何妨奠蘋藻 세 잔을 마신들 釋奠¹²⁾에 妨害 될까만

11) 녹명(鹿鳴) 편 : 본래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본래는 임금이 신하를 위해 연회를 베풀며 연주하던 악가(樂歌)이다. 후대에는 천자가 군신과 빈객(賓客)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가리킨다.

12) 석전(釋奠): 원문의 ‘전빈조(奠蘋藻)’는 빈조(蘋藻 제사음식)을 올려 제사지냄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묘에서 공자(孔子:文宣王)를 비롯한 4성 10철 72현을 제사지내는 의식인 석전(釋奠)을 가리키는 듯하다.

一編詎敢議明誠 한 편으로 어떻게 明誠¹³⁾을 論할까.
 深源定自閒中得 깊은 根源은 定히 閑暇함 가운데 얻게 되고
 妙用元從樂處生 奧妙한 쓰임은 본디 즐기는 곳에서 나온다네.
 莫問無窮菴外事 이 집 바깥의 끝없을 일들 따위 묻지도 말고
 此心聊與此山盟 이 마음 애오라지 이 山과 함께 盟誓하여야 하리라.¹⁴⁾

5. 參考文獻

- 安熙珍, 時漢字語의 理解와 靑銅거울, 2004.
 姜智曦 外 2人, 時뜻을 알면 常識이 열리는)生活密着漢字語의 다락院, 2014.
 張義均, 時보면 보이는) 우리말 漢字의 學民社, 2015.
- 金觀, 時漢字의 逆說의 三因, 2009.
 金相俊, 時孟子의 담 聖王의 皮 - 中層近代와 東亞細亞 儒敎文明의 아카넷, 2011.
 金彦鐘, 時漢字의 뿌리의~2, 文學동네, 2001.
 裴柄三, 時우리에게 儒敎란 무엇인가의 綠色評論社, 2012.
 李炳翰, 時反轉의 時代의 西海文集, 2016.
- 白川靜(立命館大學 敎授), 時漢字의 世界의 술, 2008.
 子安宣邦(大阪大 敎授), 時漢字論 - 不可避한 他者의 延世大學校 大學出版文化院, 2017.
 齋藤希史(東京大 敎授), 時近代語의 誕生과 漢文 - 漢文脈과 近代 日本의 現實文化, 2010.
 溝口三雄(東京大 敎授), 時中國의 公과 私의 新書院, 2004.
 丸山眞男(東京大 敎授), 時日本의 思想의 한길社, 2012.
 加藤周一(立命館大學 敎授), 時翻譯과 日本의 近代의 移山, 2000.

13) 명성(明誠) : ‘성(誠)’은 실천의 노력, ‘명(明)’은 탐구의 노력을 의미한다. 《중용(中庸)》 21장에 “성(誠)으로부터 명(明)해짐은 성(性)이라 하고, 명으로부터 성해짐은 교(敎)라 하니, 성하면 명해지고 명하면 성해진다”라 하였다.

14) 주희(朱熹), 〈복장서(卜掌書)의 〈백록서당 낙성〉 시에 차운함[次卜掌書落成白鹿佳句]〉, 《회암집(晦菴集)》 권7; 이황(李滉), 〈답이평숙(答李平叔)〉, 《퇴계집(退溪集)》 권37, 한국문집총간 30, 345면에서 재인용.